



핏빛 달, 백합이 피다

핏빛 달이 뜬다

가슴 속 어디쯤, 무거운 죄가 쏘인다



칼끝은 잊혔지만

그날의 숨결은 아직 내 뺨끝에 머물러 있다

지리는 조용했고

나는 더 조용했다

말 한마디 없이, 죄는 나를 따라왔다

그때,

작은 손이 내 어깨에 닿는다

백합 한 송이, 떨릿듯 내제곤네진다



무너진 심장속에

그 하얀 꽃이 피어난다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

죄와 벌 <도스토예프스키>

작품 설명

이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의 『죄와 벌』을 바탕으로, 죄를 짊어진 인간이 구원을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고전 시화이다. 핏빛 달과 붉은 그림자는 주인공의 죄와 내면을 상징하며, '칼끝은 잊었지만 그날의 숨결은 아직 내 발끝에 머물러 있다'는 구절은 죄책감의 지속성을 표현한다. 시 속 백합은 순결과 용서를 상징하며, 작지만 분명한 구원의 가능성을 나타낸다. 흔들리는 필체와 불안정한 형식은 자수하는 편지처럼, 죄책감과 진심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표현이다. 이 시는 죄는 숨길 수 없지만, 연민과 용서를 통해 다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.